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역동적인 평창

2017년 7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6일(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7. 6.(목)	담당부서	원전환경과
담당과장	안창용 과장(044-203-5340)	담 당 자	한주현 사무관(044-203-5344)

산업부,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 동향점검”
“「원전해체 기술연구소」 설립계획 하반기에 마련”
- 원전해체 전문가 간담회 개최(7.6)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원전해체 기술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원전해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7.7.6(목) 13:30～15:00,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안창용 원전환경과장 / **(학계)** 이병식 단국대학교 교수, 김창락 한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공공기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계)**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KPS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종설 팀장은 해체에 필요한 58개 상용화 기술중 현재까지 41개를 확보하였으며, ‘21년까지 나머지 17개 미확보 기술을 모두 개발하여, 해체 선진국 대비 80%인 상용화 기술 수준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면서,

< 분야별 해체 기술 수준(미국 100% 대비) >

설계	제염	절단·철거	폐기물관리	부지복원	종합
94%	92%	86%	61%	17%	80%

○ 미확보 상용화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고리1호기 해체에 필수적인 11개 해체장비에 대해서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해체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두 번째 발제자인 단국대학교 이병식 교수는 「원전해체 기술연구소」에 관한 제언을 통해 연구소는 해체에 직접 사용되는 상용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외진출을 위해 원천기술을 실제 활용하기 위한 실증 및 개량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또한, 원전해체 기술연구소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해체 기술개발을 종합관리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참석자들은 향후 5년간 과감하고 집중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이뤄지면 우리 기술로 고리1호기 해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연구소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나아가, 기존의 해체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연구를 종합 조정하기 위해 원전해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산업부 안창용 원전환경과장은 고리1호기 해체가 국내에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 미확보된 상용화 기술의 적기 개발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양성 및 산·학·연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고, 나아가 해외 선진국가와의 정보 교류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신정부 원전정책의 핵심 과제중의 하나인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원전해체 기술연구소」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지역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한주현 사무관(044-203-53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전해체 전문가 간담회 행사 개요**

□ **목적** : 산·학·연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리1호기 안전해체 및 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등 논의

□ **일시/장소** : ’17.7.6(목) 13:30~15:00, 서울역 KTX 6회의실

□ **참석** : 정부, 공공기관, 학계, 관련 산업계 등 10명

○ **(산업부)** 안창용 원전환경과장

○ **(공공기관)** 김종걸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장, 박주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사업본부장, 염학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PD

○ **(학계)** 이병식 교수(단국대), 김창락 교수(한전국제대학원대학교)

○ **(산업계)** 조직래 한국전력기술 원자력본부장, 박화규 두산중공업 설계생산총괄 전무, 이선민 한전KPS 신성장사업본부장

□ **주요내용**

①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개발 동향 (한수원 이종설 팀장, ’10)

② 동남권「원전해체 기술연구소」설립을 위한 제언 (이병식 교수, ‘10)

③ 주요 과제 토론(‘60)